

H사

K-learning 프로그램

교육일정: 매 달 진행



글로벌교육사업본부
이범(Robbie) 주임컨설턴트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해당 교육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H사에서는 국가별 취업시장의 동향부터 이력서 작성법, 일자리 찾기 tip까지 해외 취업 전반을 지원하는 K-move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캐럿글로벌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력서 / 면접 역량 특강, 비즈니스 회화 특강, 1:1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원자의 진출 희망 국가와 직군에 맞추어 적합한 취업 역량을 제공,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성사시키는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의 다변화입니다. 과정 특성 상 동일한 학습자님이 장기간 꾸준히 신청,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지 않도록 특강 마다 차별화 요소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의 이력서 특강이 기초 작성법 전달에 치중했다면 6월의 특강은 best 이력서 & worst 이력서 분석을 통한 작성 팁 전수와 같은 식입니다. 취업 역량이 라는 광범위한 토픽을 8시간짜리 특강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



일대일 이력서 비대면 심사 모습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변화를 통해 최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마다 목표로 하는 국가나 직무가 다양한데요, 이러한 타깃 국가 / 직무를 반영한 강의 콘텐츠 구성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업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취업에 비해 해외 취업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극히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필요한 역량을 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캐럿글로벌의 프로그램이 도움을 드린다 생각합니다. 해당국에서 실제 구직 활동에 성공하여 근무 경력을 갖춘 전문 강사에게 취업 역량과 실전적인 구직 팁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강사님의 보람을 통해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힘겨운 취업시기를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겹쳐 더더욱 취업난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제 과정에 참가하는 분들이 바로 최근의 취업 빙하기를 헤쳐나가는 분들입니다. 그 만큼 캐럿글로벌의 프로그램을 귀중한 기회로 생각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께서 과정 말미에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SMS나 이메일을 통해 강사님께 별도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곤 합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다. 보람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또한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니저를 가르치는 매니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남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려서 제가 겪은 사례들, 보고 들은 업무 요령과 시행 착오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잘 알아야 하겠지요. 따라서 가장 먼저 제 역량을 키우는 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 혼자만 발전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어 조직 전체를 발전시키는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